

취업주부의 시장소득에 따른 생활시간 분석

Analysis of working wives' time according to market income

남수정 · 유현정*

인하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 충북대학교 주거환경소비자학과

Nam, Su-Jung · Yoo, Hyun-Jung

Research Institution for Human Life Sciences, In Ha University ·

Dept. of Housing/Interior Design & Consumer Studie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study, we grasped the life time structure according to working woman's income using '2004 life time research'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Concrete results are shown as follows.

First, inspecting the differenc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 according to income, young women who have higher education level and larger house area had acquired more income.

Second, in case of the difference of life time according to income, there was no difference of individual support time, while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f working hours, household affairs, leisure time and moving hours.

Third, inspecting the individual time of working, household affairs, bringing up and leisure according to income,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y age, education level, sense of time oppression, and fatigue cognition. This individual difference was revealed more strongly in medium to low-ranked group.

Key Words : life time, working wives, income

I. 서론

사회발전과 더불어 가정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기혼여성이 가정 밖으로 나가 취업을 통한 가계경제 발전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오랫동안 여성에게 부여해 온 역할은 기혼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인인 동시에 주부의 역할 또한 강조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취업주부들은 전업주부들과는 다르게 역할갈등, 시간갈등 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주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주부가 직면한 문제는 가사노동의 부담과 이로 인한 시간 부족 그리고 자녀양육에서 오는 부담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정자·김갑숙, 1997; 김혜원, 1997; 손문금, 2004; 이정숙·이정우, 1995; 채로·이기영, 2004). 실제 전일제 취업주부의 평일 취업시간

은 평균 9시간 2분(이기영 외, 2001)으로 상당한 수준이며, 주당 가사노동부담이 83.5%(이기영 외, 2001)나 되어 전일제 취업주부들에게 일과 가정의 노동은 이미 상당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주부의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기혼 여성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05년 12월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 후 지속적으로 사회생활을 원하는 여성은 약 8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3). 따라서 취업주부들의 이중부담감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취업주부들의 생활시간을 분석하는 것이다. Szalai(1966)는 여성의 취업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에 대한 가사노동의 구속은 변화하기는 했지만 없어진 것은 아니며, 생활시간은 이러한 여성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조사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하루 24시

* Corresponding author: Hyun-Jung Yoo
Tel: 043) 261-2728, Fax: 043) 276-7166
E-mail: yoohj@chungbuk.ac.kr

간의 생활내용을 살펴보는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취업한 기혼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부담하는 노동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조희금, 1997)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주부들의 이중부담을 분석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김효정, 2004; 두경자, 1995; 박명숙·백경임, 1997; 손문금, 2004; 이정숙·이정우, 1995; 조희금, 1997; 조영희, 2004; 채로·이기영, 2004)에서는 생활시간을 분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을 연구하는 관점은 가족원의 비교우위의 전문화와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을 통해 설명되고 있는데 가정내의 효율적인 노동분담은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부분에 전담함으로써 가족 전체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이승신 외, 2005). 구체적으로 시장노동에 전문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시장노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합리적인 선택으로 본다. 또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생활시간의 구조는 가계원이 소유한 권력에 의해 달라진다고 보고 있는데 가족원 중 보다 많은 자원을 가진 경우 그 사람의 가정내의 노동시간은 감소되는 것으로 본다(Geerken & Gove, 1983). 취업주부의 경우 시장노동을 통해 화폐소득을 획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정내의 권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사노동의 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적으로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의 시간을 비교한 연구들(Walker, 1987; Greeken, 1983; 이정수, 1984; 한경미, 1989)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취업주부에 비해 비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원의 비교우위의 전문화 및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권력에 의해 가사노동 참여정도가 달라진다는 입장에 입각해 본다면 단순히 취업 비취업의 여부를 떠나 실제적인 취업주부의 가계기여도 즉 시장소득의 수준에 따라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들은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생활을 비교하거나(두경자, 1995; 김혜원, 1997), 부부의 생활시간 비교(문숙재·윤소영, 2003; 이종희·이연숙, 2002; 채로·이기영, 2004; 손문금, 2004) 또는 특정 직업군의 취업주부들의 생활시간을 분석하는 연구들(정진희·이정우, 2005; 김효정, 2004; 조희금, 1993, 1997)이 대부분이며 취업주부의 시장소득에 따른 생활시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소득에 따라 시장노동참여와 가사노동참여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론을 토대로 취업주부의 소득에 따른 생활시간구조를 파악

하였으며 특히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의 영향력이 소득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가지를 파악함으로써 취업주부의 노동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Ⅲ. 이론적 배경

1. 취업주부의 노동부담

취업주부들의 노동부담은 대부분 가정과 직장에서 이중역할을 수행해야 하거나 두 역할 사이의 긴장 혹은 갈등, 또는 스트레스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역할 긴장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느끼는 박탈의 느낌(Keith & Schafer, 1980) 또는 가족역할 긴장으로 가족 역할 수행의 어려움으로 설명하고 있다(Katz & Piotrkowaki, 1983). 역할갈등은 한 역할의 수행이 다른 역할의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도록 둘 이상의 압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역할양립불가능(role incompatibility)으로 설명할 수 있다(조희금·이연숙 1998). 일반적으로 취업주부의 노동부담은 위에서 언급한 역할 갈등의 의미뿐만 아니라 거기에 시장노동 참여와 가사노동의 전담에서 오는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통합적인 개념으로 포함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노동부담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노동부담의 주관적인 측면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이라는 이중노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취업주부의 시간갈등이나 긴장갈등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노동부담의 객관적인 측면은 이들의 노동조건이나 하루의 생활시간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데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즉 노동력의 소비시간과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시간의 비율을 측정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노동부담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노동부담의 주관적 측면 : 취업주부의 시간갈등 및 긴장갈등

취업주부의 이중노동 부담으로 인한 시간갈등 및 긴장갈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결핍가설(scarcity hypothesis)”과 “증대/확대 또는 역할누적 가설(enhancement/expansion, or role-accumulative hypothesis)”에 의해 설명되어지고 있다

(Korabik et al., 1993). 결핍가설에서는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늘어나면 스트레스나 역할갈등, 역할과부하(role over load)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취업주부들이 비취업 주부들에 비해 보다 많은 심리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한다(초의수, 1994; Greenglass, 1987; Kim & Kim, 1977; McBride, 1988). 반면 확대가설은 부과된 많은 역할들은 개인의 자존심, 주체성, 사회적 지위 등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에너지 자원을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많은 연구들에서는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들은 그들의 늘어난 역할 수행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취업주부는 비취주부에 비해 적은 역할 과부하(Houston et al., 1992), 높은 생활만족도(박숙자, 1992; Maynard, 1993)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취업주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가 상반된 이유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여성 취업연구에 있어 증시되어야 할 것은 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라 주부가 수행해야하는 역할의 수가 증가 혹은 감소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과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주장(Baruch et al., 1987)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들은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현재의 역할을 선택하게 된 자발성, 일반적인 성역할에 대한 태도 등의 개인적 특성이 포함될 수 있다. 또 직업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과 그로 인한 보상이나 근심정도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부들의 가족, 주변사람, 또는 사회적 제도 등으로부터 받는 원조 또한 중요한 변수인데 이러한 원조는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인 여러 형태로 제공되며 그 원조의 양적 질적 정도는 취업주부 혹은 비취업

주부가 여러 역할 수행에서 경험하게 되는 만족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 노동부담의 객관적 측면 : 취업주부의 생활시간

생활시간은 하루 24시간이 어떤 생활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시간적 배분을 통해 고려해 보는 것으로, 하루의 생활내용을 시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숙재, 1996). 생활시간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그 밖에도 노동방식, 생활수단의 양과 질, 사회적 공동 소비수단의 양과 질, 가족생활주기, 가족원의 수나 연령, 지역과 종교 등의 객관적 특성과 가치, 태도, 동기, 선호 등의 주관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생활시간을 분류하는 방법은 연구자나 연구목적에 따라 <표 1> 과 같이 다양하다.

생활시간의 분류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유지를 위한 시간, 시장노동시간, 무시장노동시간, 여가시간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중 무시장노동의 경우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가정관리'와 '가족보살피기'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고정자·김갑숙, 1997; 김혜원, 1997; 손문금, 2004; 이정숙·이정우, 1995; 채로·이기영, 2004)에서 취업주부가 직면한 문제는 가사노동의 부담과 이로 인한 시간 부족 그리고 자녀양육에서 오는 부담감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장노동의 범위를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시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시간들은 개인의 특성이나 자원 그리고 능력에 따라 시간배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취업주부의 경우 개인유지시간과 노동시간의 경우 자의대로 분배되기

<표 1> 생활시간의 분류

연구자	생활시간분류
Szalai(1972)	직업노동에 관련된 일, 가사노동, 기타 가사의무, 자녀양육, 개인적 필요시간, 직업과 관련 없는 교통시간, 학업과 조직에 참여하는 시간, 대중매체 이용시간, 여가시간
Hill(1985)	시장노동, 가사 및 육외노동, 자녀돌보기, 서비스 및 구매, 개인적 돌보기, 교육, 조직참여 활동, 사회적인 오락, 적극적인 여가, 소극적 여가
서병숙, 임정빈(1989)	생리적 시간, 가정노동시간, 수입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시간
한경미(1991)	생리적 시간, 작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조희금(1993), 이기영등(1994), 윤희숙, 박수경(1994)	근무시간, 이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개인적 돌보기 시간
김효정(2004)	생리적 생활시간, 수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사회문화적 생활시간
한국방송공사(1995)	생활필수시간(수면, 식사, 신변잡일), 노동시간(일, 학업, 가사), 이동시간, 여가시간(교제, 휴양, 레저활동, 신문, 잡지, 책, 라디오, TV 시청)
통계청(2004)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이동, 기타

<출처: 김효정(2004).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42(2) p101. 재구성>

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주어지는 반면 가사노동시간이나 여가시간은 개인특성에 따라 시간배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중 특히 가사노동의 경우 취업주부들에게 이중부담의 원인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취업주부 가정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가사노동분담

취업주부의 노동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사노동 수행과 분담을 설명하는 이론에서는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해 신고적주의 경제학, 자원이론, 시간가용이론들이 지지되고 있다.

가사노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각은 남성과 여성은 상호보완적이며 서로가 가진 자원에 의해 시간이 분배된다는 신고적주의 경제학의 시각이다. 가계의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 가족원이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생산영역을 찾아 그들의 시간을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으로 배분하게 된다는 것으로 시장노동의 경우 남성이 전문화되었다면 가사노동의 경우 여성이 상대적 우위를 갖는다는 시각이다(이승신의, 2005). 이때 상대적 우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어 온 것이 상대적 임금들이며, 이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적 효율성 혹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예측변수로 간주된다(허경옥, 1997; Becker, 1985).

다음으로 자원이론시각에서 살펴보면 각 배우자가 결혼생활에 가져오는 자원이 역할 책임을 협상하기 위한 권력이 되어 생활시간이 결정된다는 시각이다. 사회경제적 물질적 자원이 우위에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므로 교육과 수입관계에서 한쪽 배우자의 수준이 높으면 가사노동을 피할 수 있는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결국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물질적 자원이 우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지므로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배분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내의 지위가 교육수준이나 직업, 소득능력에 따라 증가한다고 봄으로써 아내의 취업이 남편 지배적인 부부권력 구조를 변화시키고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조성은, 1998).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노동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는 배우자를 가질수록 비전문직 배우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분배한다는 결론을 유도하고 있다(Clakberg & Moen, 2001).

마지막으로 시간가용(time availability)이론에 의하면

하루는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의 분배가 투자 가능한 시간의 가용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된다고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각 역할은 그 역할 수행에 시간을 요구하는데,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이 그 사람의 시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결국 한 역할의 활동에 소비되는 시간은 다른 역할의 활동에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최희경, 1995; Haddad, 1994). 이 이론에서 시간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유급노동시간이다. 따라서 가사노동은 가족 밖의 노동시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된다. 즉, 여성의 1주간 평균고용시간의 증가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남녀 간의 차이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ianchi et al. 2000).

위에서 살펴본 신고적주의 경제학과 자원이론 그리고 시간가용설을 종합해 보면 성역할로 전문화된 시간사용은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족적 전략이거나 인적 자원이나 시간자원에 따른 합리적인 분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들을 종합해 보면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 배분은 여성의 개인적 능력 즉 교육수준이나 직업계층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배분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취업주부의 소득에 따른 개인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취업주부의 소득에 따른 생활시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취업주부의 소득에 따라 개인특성의 생활시간에 대한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생활시간분석을 위해 시간일지법을 통해 수집된 통계청의 「2004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20대 이상 현재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기혼여성이며 취업과 비취업의 여부는 맞벌이/비맞벌이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문항에 맞벌이로 응답한 경우 취업주부로 간주하였으며,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에 자신이 한 행동을 응답자가 자기기입방식(after-cody diary)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취업주부의 일반적인 특성 및 생활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개인특성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용어의 정리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04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을 분석함에 있어 취업주부들의 주관적인 시간갈등의 요소가 되는 시간압박감과 가사노동부담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성역할태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활시간분류

본 연구의 생활시간분류는 통계청에 의한 분류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② 시간압박감

시간압박감이란 고정된 시간예산 하에 무시장노동, 개인유지시간, 여가시간 등의 전반적인 생활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지각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손문금(2004)의 연구에서는 시장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가지는 취업주부들은 어떠한 집단 보다 총노동시간이 길고 자유시간이 적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압박감을 경험하는 집단이라고 간주하였다. 또한 시간압박감은 각 개인의 노동부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노동부

담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인 생활시간구조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시간압박감은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가 1, “그렇지 않다”가 2, “그렇다”가 3, “항상 그렇다”가 4로 측정되었다.

③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란 전통적인 성역할에 의한 과업분담에 대한 의식으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성역할태도는 가사노동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지는데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남편의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송혜림, 1988; 이승미, 1994; 허경옥, 1994; 조미환, 1998). 한편 부인의 성역할 태도의 경우 근대적일수록 가사노동을 많이 분담하는 경향이 커지며 부인의 성역할 태도 역시 진보적일 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송혜림, 1988). 구체적으로 성역할태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커질수록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④ 피로정도

피로정도는 평소에 어느 정도 피곤함을 느끼는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역시 4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커질수록 피로감을 느끼는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⑤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 분류

취업주부의 소득수준의 경우 통계청의 분류체계를 근거로 월평균 개인의 소득으로 구분하였고 50만원 미만인 경우 I 집단,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II 집단,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III 집단,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IV 집단, 300만원 이상인 경우 V 집단으로 표시하였다.

<표 2> 생활시간분류

영역	활동
시장노동	고용된 일 및 자영업, 구직활동, 일 관련 물품구입 등
가사노동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등
자녀양육	신체적 돌보기, 놀아주기, 숙제 및 공부봐주기, 상담 및 학교방문
개인여가	이웃 및 친분 있는 사람 돕기, 사회참여활동, 자원봉사, 교제활동, 대중매체이용,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스포츠 및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개인유지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 기타
이동	개인유지 관련 이동, 출퇴근, 관정관리 관련 이동 등

IV. 연구결과

1. 소득에 따른 개인적 특성

소득에 따른 취업주부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V집단의 경우 연령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집단에서는 중졸 이하가 50.6%로 가장 많았으며 II집단과 III집단의 경우 고졸 이하가 각각 48.6%, 46.7%, 그리고 IV집단과 V집단의 경우 대졸 이하가 각각 53.2%, 49.3%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서비스판매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반면 IV집단에서는 전문직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휴일의 경우 I집단은 수시로 쉬는 경우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지며 그 밖의 집단들에서는 주1회의 휴일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유형의 경우에도 소득이 최하위 집단인 I집단에서는 단독주택의 빈도가 높은 반면 그 밖의 집단에서는 아파트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면적의 경우 소득이 클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자녀의 경우 있는 가정 보다 없는 가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압박감의 경우 소득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성역할태도 역시 소득이 커질수록 전통적인 역할분담에 동의하는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로정도는 I집단에서 가장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I 집단의 직업이 서비스판매와 단순노무의 빈도가 많은 것에 비추어 본다면 다른 집단 보다는 육체적 노동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소득에 따른 인구통계적 특성

변인	I 집단(n=1,628)	II 집단(n=3,144)	III 집단(n=2,028)	IV 집단(n=602)	V 집단(n=272)	F/ χ^2	
연령 ¹⁾	47.05 (12.12)c	43.49 (9.40)b	40.39 (9.33)a	39.82 (7.71)a	42.68 (7.41)b	121.87***	
교육수준	중졸이하	824 (50.6)	1,260 (40.1)	470 (23.2)	68 (11.3)	20 (7.4)	1477.499***
	고졸이하	602 (37.0)	1,528 (48.6)	948 (46.7)	172 (28.6)	78 (28.7)	
	대졸이하	186 (11.4)	342 (10.9)	558 (27.5)	320 (53.2)	134 (49.3)	
	대학원졸이상	16 (1.0)	14 (0.4)	52 (2.6)	42 (7.0)	40 (14.7)	
직업	전문직	22 (1.4)	62 (2.0)	198 (9.8)	210 (34.9)	120 (44.1)	2466.498***
	준전문직	82 (5.0)	160 (5.1)	192 (9.5)	54 (9.0)	28 (10.3)	
	사무직	104 (6.4)	302 (9.6)	338 (16.7)	136 (22.6)	32 (11.8)	
	서비스판매	566 (34.8)	1,304 (41.5)	958 (47.2)	184 (30.6)	86 (31.6)	
	농어업	170 (10.4)	108 (3.4)	66 (3.3)	8 (1.3)	0	
	기능직	86 (5.3)	252 (8.0)	78 (3.8)	2 (0.3)	4 (1.5)	
	장차기계	32 (2.0)	238 (7.6)	88 (4.3)	4 (0.7)	0	
	단순노무	566 (34.8)	718 (22.8)	110 (5.4)	4 (0.7)	2 (0.7)	
정기적인 휴일	일주일예한번	320 (19.7)	1,940 (47.5)	818 (40.3)	260 (43.2)	128 (47.1)	1448.215***
	토요일격주	22 (1.4)	198 (6.3)	176 (8.7)	86 (14.3)	32 (11.8)	
	주2회	150 (9.2)	432 (13.7)	366 (18.0)	146 (24.3)	54 (19.9)	
	매2주1회	26 (1.6)	218 (6.9)	164 (8.1)	14 (2.3)	16 (5.9)	
	수시로쉬	1,004 (61.7)	630 (20.0)	374 (18.4)	68 (11.3)	40 (14.7)	
기타	106 (6.5)	172 (5.5)	130 (6.4)	28 (4.7)	2 (0.7)		
주거유형	단독주택	820 (50.4)	1,432 (45.5)	758 (37.4)	120 (19.9)	52 (19.1)	377.807***
	아파트	576 (35.4)	1,194 (38.0)	898 (44.3)	398 (66.1)	194 (71.3)	
	연립주택	138 (8.5)	330 (10.5)	194 (9.6)	38 (6.3)	14 (5.1)	
	다세대주택	56 (3.4)	122 (3.9)	88 (4.3)	18 (3.0)	2 (0.7)	
	기타	38 (2.3)	66 (2.1)	90 (4.4)	28 (4.7)	10 (3.7)	
주거면적 ¹⁾	20.82 (7.77)ab	20.48 (7.41)a	21.17 (9.12)b	23.97 (8.37)c	28.54 (9.87)d	79.784***	
미취학 자녀여부	있음	292 (17.9)	434 (13.8)	480 (23.7)	184 (30.6)	56 (20.6)	138.590***
없음	1,336 (82.1)	2,710 (86.2)	1,548 (76.3)	418 (69.4)	216 (79.4)		
부양부모	있음	756 (46.4)	1,592 (50.6)	1,080 (53.3)	420 (69.8)	180 (66.2)	121.215***
	없음	872 (53.6)	1,552 (49.4)	948 (46.7)	182 (60.2)	92 (33.8)	
시간부족인식 ¹⁾	2.87 (.80)a	3.22 (.73)b	3.35 (.68)c	3.45 (.61)d	3.51 (.58)d	141.701***	
성역할태도 ¹⁾	2.39 (.65)a	2.27 (.63)b	2.19 (.62)c	1.98 (.67)d	2.06 (.65)d	56.517***	
피로정도 ¹⁾	3.10 (.76)b	3.38 (.65)a	3.41 (.61)a	3.41 (.57)a	3.39 (.62)a	65.909***	

1) sheffe test 결과임, *p<.05, **p<.01, ***p<.001

2. 소득에 따른 생활시간

소득에 따른 생활시간을 살펴보면 개인유지 시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장노동시간의 경우 I집단이 202.80분으로 가장 적은 나타났고 III집단의 시장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집단에서는 소득이 커질수록 노동시간이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집단의 시장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위의 정기적인 휴일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I집단의 경우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기 보다는 비정기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육체적인 노동 보다는 전문직 또는 준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사노동의 경우 I집단이 212.18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IV집단이 136.34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100만원 이상인 III, IV, V 세 집단의 경우 가사노동 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경우 소득이 낮은 집단과 비교해 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집단의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이 100만원 이상 일정 수준일 경우 소득의 증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소득 수준이 낮은 I집단과 II집단의 경우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비정기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수준 또한 높지 않고 가정 내에서 소득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그리 크게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족원들에게 가사노동에 부담을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가사노동의 사회화 또한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취업주부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일정 수준 이상 수입(100만원)을 창출하고 있는 III 집단 이상의 집단에서는 가정내에서의 소득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사노동의 사회화나 분담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III집단 이상의 경우 취업주부의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가사노동의 시간이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취업주부들에게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가사량을 비교적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전히 여성에게 부여되는 고유의 가사노동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영역은 여성의 소득의 수준과는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취업주부의 소득과 가사노동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취업주부의 소득이 가정 내의 소득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

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가사노동의 시간은 감소하지만 취업주부의 소득과 비례해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주부의 소득이 가정 내의 소득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취업주부 소득은 가사노동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녀양육의 경우 II집단이 22.78분으로 가장 낮았으며 I집단이 38.40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시간의 경우 I집단을 제외하고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거나 또는 소득의 정도에 따라 취업주부의 연령이 감소하여 자녀의 연령 또한 어리기 때문에 자녀양육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취업주부들의 자녀양육시간은 다른 생활시간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비교해 자녀양육시간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 부모가 했던 자녀의 교육에 직접 참여해 공부를 가르쳐 준다거나 함께 놀아주는 것 대신에 대부분의 가정에서의 자녀의 교육은 사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날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한 부모의 역할은 경제적인 뒷받침과 교육에 대한 정보탐색 및 획득 등으로 바뀌어 실제적인 시간의 투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동아일보 2005년의 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하여 아이의 적성이 무엇인지 어느 학원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분초 단위로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을 좋은 엄마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나타났고(동아일보, 2005)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자녀와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기 보다는 자녀의 교육은 계획 관리하는 것이 부모의 몫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취업주부들에게 자녀양육과 관련한 역할부담은 실제적인 시간에 대한 부족보다는 정보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진다.

여가시간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인 I집단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III집단이 193.79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집단이 노동임금시간이 가장 적고 III집단의 노동시간이 가장 많은 이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I집단의 경우 안정적인 수입원을 가지기 보다는 부업과 같은 활동을 통해 비정기적인 수입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들은 전일제 취업주부라고 보기 어려우며 시간사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업주부의 특성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취업주부의 소득에 따른 생활시간

분류	I 집단 (n=1,628)	II 집단 (n=3,144)	III 집단 (n=2,028)	IV 집단 (n=602)	V 집단 (n=272)	F
개인유지시간	614.93 (100.54)	616.31 (98.11)	618.32 (104.80)	616.23 (111.71)	609.70 (103.58)	.560
시장노동시간 ¹⁾	202.80 (189.91)a	307.11 (212.01)b	329.40 (211.54)c	312.90 (201.36)bc	311.98 (195.65)bc	99.957***
가사노동시간 ¹⁾	212.18 (108.00)c	168.86 (110.71)b	140.29 (97.92)a	136.34 (97.37)a	137.38 (105.58)a	125.00***
자녀양육시간 ¹⁾	36.40 (65.18)c	22.78 (48.03)a	32.51 (66.41)b	40.56 (62.42)c	26.94 (43.27)ab	23.07***
개인여가시간 ¹⁾	247.67 (147.62)c	202.48 (133.68)ab	193.79 (129.62)a	205.66 (130.99)b	218.05 (131.22)b	41.54***
이동시간 ¹⁾	82.57 (71.98)a	91.01 (70.93)b	97.55 (70.44)c	103.45 (81.78)cd	113.05 (69.76)d	19.63***

1) sheffe test 결과임, * $p<.05$, ** $p<.01$, *** $p<.001$

3. 소득에 따른 개인특성의 생활시간에 대한 영향력

생활시간의 6가지 영역 중 개인유지시간과 이동시간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특성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를 시장노동, 가사노동, 자녀양육, 개인여가의 4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1) 소득에 따른 개인특성의 시장노동시간에 대한 결과

개인특성에 따른 시장노동시간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 직업, 휴일정도, 시간압박, 피로정도가 각 집단별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 집단과 V 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과 비교해 개인특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I 집단의 경우 전문직이 사무직과 비교해 노동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직의 사례수가 2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로 보기 어려우며 시간압박이 크고 피로정도가 클수록 시장노동시간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압박과 피로정도가 시장노동시간에 영향을 준 것이라기 보다는 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압박감과 피로정도가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I 집단의 경우 연령이 작아질수록 시장노동시간이 많아지며 사무직과 비교해 서비스판매와 단순기능직의 노동시간이 길어지며 미취학자녀가 없고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시장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집단

〈표 5〉 개인특성에 따른 시장노동시간

변인	I 집단 (n=1,628)	II 집단 (n=3,144)	III 집단 (n=2,028)	IV 집단 (n=602)	V 집단 (n=272)	
	B(β)	B(β)	B(β)	B(β)	B(β)	
상수	7.25	226.58**	129.16**	152.77	422.94*	
연령	.58 (0.04)	-1.51 (-.06)**	-.12 (-.01)	.16 (.01)	-3.18 (-.12)	
교육수준-vs. 고졸이하	중졸이하	1.49 (.01)	15.86 (.03)	41.74 (.08)**	13.83 (.02)	11.13 (.01)
	대졸이상	15.81 (.03)	-7.91 (-.01)	-30.98 (-.07)	-37.49 (-.09)	-19.81 (-.04)
직업-vs. 사무직	전문직	-67.99 (-.09)	6.94 (.01)	-34.78 (-.06)*	9.63 (.02)	.92 (.01)
	서비스판매	-12.55 (-.03)	34.12 (.03)*	25.37 (.06)	63.89 (.15)*	23.82 (.05)
	단순기능	14.49 (0.38)	47.32 (.11)***	-3.42 (-.01)	26.96 (.02)	-98.51 (-.07)
휴일정도	-5.241 (-.036)	-18.35 (-.13)	-9.03 (-.06)**	-23.01 (-.15)***	-22.89 (-.14)**	
주거유형	단독주택	10.19 (.027)	2.58 (.01)	18.53 (.04)	45.63 (.09)	49.84 (.10)
주거면적		-.62 (-.02)	-2.19 (-.07)***	-.62 (-.03)	1.26 (.05)	1.26 (.06)
미취학자녀여부		21.99 (.04)	-24.93 (-0.04)*	-21.09 (-.04)	19.42 (.04)	25.92 (.05)
부양부모여부		-17.11 (-.045)	-24.58 (-.06)**	-10.46 (-.02)	-1.12 (-.01)	-7.53 (-.01)
시간압박		22.23 (.095)***	35.43 (.12)***	27.29 (.09)***	45.36 (.14)***	32.95 (.09)
피로정도		43.19 (.17)***	36.40 (.11)***	44.00 (.13)***	37.82 (-.11)**	19.95 (-.06)
성역할태도		1.28 (.01)	-6.47 (-.02)	1.80 (.01)	2.84 (.01)	1.94 (.01)
F	9.84***	21.05***	15.32***	4.68***	1.34	
adjR ²	.08	.08	.09	.10	.07	

* $p<.05$, ** $p<.01$, *** $p<.001$

과 마찬가지로 시간압박과 피로정도와 시장노동시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집단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라 시장노동시간이 달라지며 전문직의 시장노동시간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인 휴일의 수가 작아질수록 시장노동 시간이 증가하며 시간압박과 피로정도 역시 시장노동시간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IV집단에서는 서비스판매직의 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시간압박과 피로정도와 시장노동시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V집단에서는 유일하게 휴일정도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기타 다른 개인특성에 따른 노동임금시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득에 따른 개인특성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결과

소득에 따른 개인특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영향력은 <표 6>과 같다. 전반적으로 연령, 휴일정도, 미취학자녀 여부, 부양부모여부, 피로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V집단과 V집단의 경우 다른 집과 비교해 개인특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회귀식의 R2의 값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특성만으로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먼저 I 집단의 경우 미취학자녀가 없고 부양부모가 있으며 피로정도를 덜 인식하고 성역할태도의 경우 전통적일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사노동의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성역할 태도의 경우 전통적일수록 남성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해 부정적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성역할의 태도의 경우 다른 집단과 비교해 유일하게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I 집단에서만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I집단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고 휴일정도가 많으며 I 집단과 마찬가지로 미취학자녀가 없고 부양부모가 있으며 피로정도를 덜 인식할수록 가사노동의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정도가 많아질수록 가사노동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취업주부들의 경우 휴일에도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II집단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고 전문직이며 휴일정도가 많고 주거면적이 넓으며 시간압박이 적을수록 가사노동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면적이 넓을수록 가사노동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시간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시간압박을 작게 인지하는 집단일수록 가사노동의 참여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IV집단의 경우 연령과 미취학자녀여부, 부양부모여부

<표 6> 개인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변인	I 집단 (n=1,628)	II 집단 (n=3,144)	III집단 (n=2,028)	IV집단 (n=602)	V 집단 (n=272)	
	B(β)	B(β)	B(β)	B(β)	B(β)	
상수	223.78***	104.32***	82.42***	96.91*	-13.76	
연령	-.16 (-.01)	1.31 (.11)***	1.28 (.12)***	1.61 (.18)*	1.30 (.09)	
교육수준-vs 고졸이하	중졸이하	-6.66 (-.03)	.52 (.02)	-7.51 (-.03)	-.61 (-.02)	-3.38 (-.08)
	대졸이상	.42 (.01)	3.62 (.01)	-7.28 (-.03)	12.87 (.06)	21.02 (.09)
직업-vs. 사무직	전문직	-19.69 (-.04)	3.70 (.09)	16.61 (.06)*	-22.26 (-.11)	37.96 (.17)
	서비스판매	3.49 (.01)	-4.21 (-.01)	-12.44 (-.06)	-12.86 (-.06)	53.09 (.23)*
	단순기능	6.76 (.03)	-3.37 (-.01)	9.93 (.03)	16.36 (.02)	31.76 (.04)
휴일정도	1.81 (.02)	6.81 (.09)***	4.28 (.06)*	-4.47 (-.05)	9.66 (.11)	
주거유형	단독주택	2.37 (.01)	.77 (.03)	-2.60 (-.03)	-9.00 (-.03)	27.30 (.10)
주거면적	.85 (.06)	.99 (.06)	.71 (.07)*	.21 (.01)	-.34 (-.03)	
미취학자녀여부	-28.32 (-.10)***	-13.43 (-.04)*	-9.74 (-.04)	-24.15 (-.11)*	-46.90 (-.18)*	
부양부모여부	24.01 (.11)**	36.53 (.16)***	39.30 (.20)***	32.31 (.15)***	44.75 (.20)*	
시간압박	-.59 (-.04)	-2.56 (-.01)	-9.18 (-.06)**	-9.83 (-.06)	-.18 (-.01)	
피로정도	-17.69 (-.12)***	-12.67 (-.07)***	.08 (.01)	5.94 (.03)	-5.37 (-.03)	
성역할태도	8.21 (.05)*	1.09 (.06)	-2.27 (-.05)	-5.06 (-.03)	9.49 (.05)	
F값	4.64***	9.81***	9.66***	2.31**	1.97*	
adjR ²	.04	.04	.06	.05	.09	

*p<.05, **p<.01, ***p<.001

가 그리고 V집단에서는 서비스판매직과 미취학자녀여부 그리고 부양부모여부가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득에 따른 개인특성의 자녀양육시간에 대한 결과

개인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시간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녀양육시간의 경우 다른 시간과 비교해 회귀식의 R2의 값이 .49, .39, .36, .32, .37로 나타나 개인특성의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미취학자녀여부와 부양부모여부가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과 피로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IV집단과 V집단의 경우 다른 집단과 비교해 개인특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 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기능직의 경우 자녀양육시간이 적어지며 미취학자녀가 있고 부양부모가 있을수록 자녀양육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집단의 결과에서는 전문직인 경우 자녀양육시간이 길어지며 휴일정도가 많고 주거면적이 넓고 피로정도가 적을수록 자녀양육시간이 길어지며 I집단과 마찬가지로 미취학자녀와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의 경우 자녀양육 및 교육의 필요성을 좀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휴일이 많아질수록 자녀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

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III집단의 경우 II집단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이고 미취학자녀와 부양부모가 있으며 피로정도가 적을수록 자녀양육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집단의 경우 미취학자녀와 부양부모 여부만이 영향이 있는 나타났으며 V집단의 경우 연령이 감소하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득에 따른 개인특성의 여가시간에 대한 결과

개인특성에 따른 개인여가시간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반적으로 미취학자녀 여부, 시간압박, 피로정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V집단의 경우 개인특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 집단의 경우 전문직과 서비스판매직의 개인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자녀가 없고 시간압박과 피로정도를 덜 인식할수록 개인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와 같이 전문직인 경우 시장노동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II집단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휴일정도가 많고 주거면적이 넓을수록 여가시간이 증가하며 I집단과 마찬가지로 미취학자녀가 없고 시간압박과

<표 7> 개인특성에 따른 자녀양육시간

		I 집단 (n=1,628)	II 집단 (n=3,144)	III 집단 (n=2,028)	IV 집단 (n=602)	V 집단 (n=272)
		B(β)	B(β)	B(β)	B(β)	B(β)
상수		26.78*	16.28*	20.79	29.47	29.61
연령		-.24 (-.04)	-.12 (-.02)	-.08 (-.03)	-.40 (-.05)	-.85 (-.14)*
교육수준-vs. 고졸이하	중졸이하	-3.12 (-.02)	-1.53 (-.01)	5.23 (.03)	1.70 (.09)	2.90 (.01)
	대졸이상	6.55 (.03)	.86 (.06)	4.09 (.02)	8.58 (.06)	7.38 (.08)
직업-vs. 사무직	전문직	3.38 (.01)	7.17 (.03)*	19.23 (.11)***	1.43 (.01)	-.88 (-.01)
	서비스판매	-8.51 (-.06)	-8.21 (-.08)***	-1.49 (-.01)	7.84 (.05)	-14.51 (-.15)
	단순기능	-10.86 (-.08)*	-8.46 (-.08)***	-.55 (-.03)	-15.09 (-.04)	-6.55 (-.02)
휴일정도		1.47 (.03)	2.22 (.06)***	1.42 (.03)	-3.43 (-.07)	2.42 (.07)
주거유형	단독주택	-1.57 (-.01)	-.16 (-.02)	-.61 (-.04)	3.25 (.02)	9.15 (.08)
주거면적		-.14 (-.01)	.25 (.03)**	-.17 (-.02)	-.41 (-.05)	-.13 (-.03)
미취학자녀여부		88.22 (.51)***	65.86 (.47)***	73.98 (.47)***	56.26 (.41)***	42.46 (.39)***
부양부모여부		23.07 (.17)***	16.13 (.16)***	21.40 (.16)***	24.87 (.18)***	10.36 (.11)
시간압박		.70 (.09)	.83 (.01)	1.619 (.017)	-.40 (-.04)	.75 (.01)
피로정도		-.89 (-.01)	-3.79 (-.05)***	-7.98 (-.07)***	1.24 (.01)	5.95 (.08)
성역할태도		.88 (.09)	-.16 (-.02)	-.28 (-.03)	.89 (.01)	-4.54 (-.06)
F값		111.23***	142.88***	83.78***	19.69***	10.93***
adjR ²		.49	.39	.36	.32	.37

*p<.05, **p<.01, ***p<.001

〈표 8〉 개인특성에 따른 개인여가시간

		I 집단 (n=1,628)	II 집단 (n=3,144)	III 집단 (n=2,028)	IV 집단 (n=602)	V 집단 (n=272)
		B(β)	B(β)	B(β)	B(β)	B(β)
상수		428.65***	291.41***	362.68***	403.20***	126.95
연령		-.25 (-.02)	.74 (.05)*	-.01 (-.01)	.74 (.04)	3.15 (.18)*
교육수준-vs. 고졸이하	중졸이하	-6.38 (-.02)	-15.47 (-.05)*	-35.08 (-.11)***	-21.78 (-.05)	10.52 (.02)
	대졸이상	-1.60 (-.04)	2.33 (.06)	12.72 (.04)	-9.14 (-.03)	-23.48 (-.08)
직업-vs. 사무직	전문직	88.35 (.14)***	-10.53 (-.02)	2.99 (.09)	34.07 (.12)*	9.78 (.03)
	서비스판매	36.82 (.19)*	-6.25 (-.02)	3.27 (.01)	-23.65 (-.03)	-30.47 (-.10)
	단순기능	7.03 (.02)	-27.07 (-.10)***	8.75 (.02)	8.23 (.01)	-22.47 (-.02)
휴일정도		3.03 (.02)	8.42 (.09)***	5.12 (.05)**	-5.59 (-.05)	2.41 (.02)
주거유형	단독주택	-12.23 (-.04)	-8.19 (-.03)	-9.95 (-.03)	-13.06 (-.04)	-47.27 (-.14)
주거면적		.06 (.00)	.82 (.04)*	-.29 (-.02)	-.49 (-.03)	.51 (.03)
미취학자녀여부		-67.41 (-.17)***	-23.20 (-.06)**	-33.41 (-.11)***	-39.24 (-.13)**	-8.56 (-.02)
부양부모여부		-7.65 (-.02)	-6.05 (-.02)	-19.52 (-.07)**	-13.47 (-.04)	2.40 (.09)
시간압박		-26.43 (-.14)***	-25.80 (-.14)***	-19.22 (-.10)***	-45.16 (-.21)***	-8.59 (-.03)
피로정도		-27.93 (-.14)***	-19.03 (-.09)***	-28.94 (-.13)***	1.30 (.06)	-1.80 (-.09)
역할담의식		-7.46 (-.03)	6.20 (.02)	3.59 (-.01)	-11.40 (-.09)	-.24 (-.01)
F값		14.90***	18.35***	11.54***	4.91***	1.35
adjR ²		.11	.07	.074	.10	.09

*p<.05, **p<.01, ***p<.001

피로감을 덜 인식할수록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집단의 경우 II집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IV집단의 경우 전문직이고 미취학자녀가 없으며 시간압박이 적을수록 여가시간이 증가하며 V집단의 경우 연령만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소득일수록 개인적 특성으로 여가시간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2004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취업주부의 소득에 따른 생활시간구조를 파악하였으며 특히 생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이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파악함으로써 취업주부의 이중부담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에 따른 개인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주거면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유지시간의 경우 차이가 없으며 시장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개인여가시간, 이동시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시장노동시간은 증가하였지만 가사노동시간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여가시간이 더 많은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시간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별로 개인특성의 시장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자녀양육시간, 개인여가시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연령과 교육수준 그리고 시간압박감과 피로감인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소득이 중하위정도인 집단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생활시간의 차이를 개인적인 특성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주부의 소득과 가사노동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취업주부의 소득이 가정 내의 소득창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 이상일 경우 가사노동의 시간은 감소하지만 취업주부의 소득과 비례해 가사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아니며 취업주부의 소득이 가정 내의 소득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이상의 일정 수준에서는 취업주부 소득은 가사노동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여성의 소득은 어느 정도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부여되는 고유의 가사노동 영역은 존재하는 것으로

로 보여지며 이러한 영역은 여성의 소득의 수준과는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여성의 소득(자원)은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화된 채로 남고 남성들은 여전히 가족일과 무관하다는 기존의 페미니즘 이론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장혜경·김영란, 1998; 조혜정, 1988). 따라서 이러한 가사노동의 성적분배가 성관계에서의 상징적인 면모를 나타낸다는 페미니즘적 시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남, 녀별 소득수준에 따른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특성의 생활시간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고소득의 경우 개인적특성 중 두개의 변수만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은 집단과 비교해 개인적 특성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시간을 제외한 시장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개인여가시간의 경우 회귀식의 R2의 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의 경우 남편 및 기타 가족원과의 관계에 의해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사회환경적 지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 생활시간, 취업주부, 소득

참 고 문 헌

- 고정자·김갑숙(1997)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35(1), 429-441.
- 김혜원(1997) 사회구조적 변인과 사회적 지원에 따른 취업주부·비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 한국심리학회지:여성2(1), 115-136.
- 김효정(2004)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42(2), 99-116.
- 두경자(1995) 기혼여성(가사전담 전일제근무 취업주부와 완전자력 전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에 대한 한·미·일 비교. 사회과학연구, 7, 297-320.
- 문숙재(1996) 생활시간연구. 학지사.
- 문숙재·윤소영(2003). 맞벌이 주말 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13-220.
- 박명숙·백경임(1997) 주부의 시간사용과 시간사용 만족-초등학교이하 자녀를 둔 비취업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35(6), 173-189.
- 박숙자(1992) 첫 자녀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사회문화연구소.
- 서병숙·임정빈(1989) 가정관리학. 동명사.
- 손문금(2004) 맞벌이주부의 시간부족인식. 여성학연구, 159-196.
-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 협력에 대한 부인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이기영·이연숙·조희금·伊慧·天野寛子(2001)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 비교.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승미(1994).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충북가정학회지3(1), 23-31.
- 이승신·김기옥·김경자·심영·정순희(2005) 가계경제분석, 신정출판사.
-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22(2), 103-131.
- 이정숙·이정우(1995)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이 가정관리행동과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33(4), 129-147.
- 이종희·이연숙(2002). 주휴휴무제에 따른 기혼남녀의 주말 생활시간 구조와 여가시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65-177.
- 장혜경·김영란(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정진희·이정우(2005). 판매직 주부의 공평성 인지도·역할 스트레스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2), 81-92.
- 조미환(1998). 도시 기혼남성의 가사노동 참여와 가정생활 만족도. 한국여성교양학회지, 5, 5-20.
- 조성은(1998)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영희(2004) 한부모가족 부·모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22(1), 139-151.
- 조혜정(1988) 가족관계: 여성의 취업여부와 계층에 따른 비교적 고찰.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79-231.
- 조희금(1993) 생산적 기혼여성의 생활시간분석. 대한가정학회지31(3), 101-112.
- 조희금(1997)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생활시간구조분. 대한가정학회지35(1), 1-14.
- 조희금·이연숙(1998). 기혼여성의 생산직 노동 참여배경과 노동 부담.

- 채로 · 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22(5), 265-281.
- 초의수(1994) 기혼여성의 취업구조와 경제적 자립. *여성연구논집*, 5, 부산여대 여성문제 연구소. 7-60.
- 최희경(1995)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관계: 직장-가정 갈등과 개인차 변인, 가정변인, 직장변인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3) 인구동태연보: 인구동태신고에 의한 집계. 대전: 통계청
- 한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7(2). 1-13.
- 한경미(1991) 취업주부의 생활시간사용과 시간갈등.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방송공사(1995). 국민생활시간조사.
-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90-105.
- 허경옥(1997) 기혼여성의 취업이 부부의 시간사용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연구논문집*, 35, 333-358.
- 홍향숙 · 박수경(1994) 조기출퇴근제 실시에 따른 부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32(2). 49-59.
-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제로섬 게임(2004, 2, 2) 동아일보
- Baruch, G. K., Bierner, L., & Barnett, R. C.(1987) Women and gender in research on work and family stress. *American Psychologists* 42(2).130-136.
- Becker, Gary(1885) Human capital , effort, and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3, 33-58.
- Bianchi, S. M., M. Miller, L. Sayer, & J. Robinson(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 Clakberg, Marin & Phyllis Moen(2001) Understanding the time-squeeze: Married couples, Preferred and actual work-hour strateg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4(7), 1115-1135.
- Geerken M. & Gove W. R.(1983) At home and at 재다0the family's allocation of labor.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Safe publication.
- Greenglass, E. R.(1987) *Social support and coping of employed women*. In B. C.Long & S. E. Kahn(Eds.), *Women work, and coping: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workplace Stress*. Montreal: McGill-Queen's univ. Press.
- Haddad, Tony(1994) Men's contribution to family work: A Reexamination of time avail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24, 87-111.
- Hill, M. S.(1985) Patterns of time use. finding from CPS. *Monthly Labor Review*, 109(11), 31-35.
- Houston, B. K. & Cates, D. S., & Kelly, K. E.(1992) Job stress, psychological strain, and physical health problem in women employed full-time outside the home and homemakers. *Women and Health*, 19(1),1-26.
- Katz, M. H. & Piotrkowski, C. S.(1983) Correlaties of family role strain among employed black women, *Family Relations*, 32, 331-339.
- Keith, P. M. & Schafer R.(1980) Role strain and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Family Relations*, 291, 483-488.
- Kim, O. L., & Kim, K(1977) A casual interpretation of the effect of mother's education and employment status on parental decision-making role patterns in the Korean famil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8(1), 118-131.
- Korabik, K., McDonald, L. M., & Rosin, H. M.(1993)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women managers*. In B. C. Long & S. E. Kahn(Eds). *Women, work, and coping: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workplace stress*. Montreal: Mcgill-Queen's Univ. Press.
- Maynard, M.(1993) A comparison of female professionals' role profits with occupationa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Employment Counseling*, 30, 123-142.
- McBride, A.(1988) Mental health effects of women's multiple roles. *Image: Journal of Nurse School*, 20, 41-47.
- Szalai, A(1966) *The use of time. daily activities of urban and suburban popluations in twelve counties*. The Hague: Mouton.
- Walker, K. E. & Woods M. E.(1976)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06. 06. 09 접수; 2006. 10. 31 채택)